

새 세계에의 초대

— 누가 14, 16—24 —

새 세계의 계시

어떤 사람이 만찬회를 마련하고 초청장을 냈다. 그 초청장의 내용은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시오」였다. 그러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 초청을 거부했다. 그 거부의 이유들은 발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했다 등이다. 이 주인은 저들에게 분노를 느끼면서 그 종들에게 「어서 동네 큰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뚝발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했다. 그래도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았기에 아무나 데려다가 그 만찬회를 채우라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띄이는 것은 그 내용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到來는 예수의 설교의 中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 비유의 특징만이 아니라 예수의 그 나라 비유 전

반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分明히 새 세계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묘사가 없다. 이것은 플라토를 위시한 회랍 哲人들의 理想圖이나 허부리 文學派의 未來의 世界 思辨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그 나라의 性格을 유도해서 어떤 유토피아의 새 社會의 근거를 삼으려는 노력은 발 불칠 데가 없다.

이 비유는 오히려 초대 받은 者들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청을 받은 자들의 거부와 그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자들의 처지에 대한 서술이 그것이다. 그러면 이 비유는 그 나라 자체의 性格을 나타내려는 데 있지 않고 새 세계에 對한 人間의 자세를 말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유대 전승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유대 전승 중에 이와 비슷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한 王이 그 아들의 결혼을 위한 만찬회에 초대한 것을 期日 未定으로 미리 통고해 두었다. 이 통고를 받은 사

람들 중에 영리한 사람들은 「王의 집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 어느 순간에도 부를 것이다」고 하면서 미리 몸을 깨끗이 하고 宮殿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미련한 者들은 「짐스러운 준비 없이도 참여할 잔치는 없나, 王의 집 잔치야 어떻게들 눈치 못 차리리」하면서 소름이는 소에게,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대장장이는 그의 숯더미로, 배짜기는 배틀에 갔다. 그러나 갑자기 곧 오라는 초청이다. 미리 준비한 영리한 자들은 단정히 준비된 몸으로, 미련한 자들은 일손 그대로 참여했다. 이것을 본 王은 그 미련한 자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영리한 자들이 먹는 것을 구경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 이 비유는 청함 받은 자들에 대한 심리적 묘사는 전혀 없다. 무엇보다도 다른 점은 그 주인이 단 한번으로 초청을 마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했다는 사실과 청한 자에 대한 평가가 그들 自身の 어떤 공로나 價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청함에 응하느냐, 아니냐로써만 두 계열로 갈라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was)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人間에게 무엇을 意味하느냐(Wie)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말로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현실에 살고 있는 人間을 啓示했다.

새 세계에의 초대

이 비유의 중심은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시오」에 있다. 이것이 새 세계에의 초대다. C.H. Dodd는 이것은 바로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가 1, 15)의 뜻과 相通한다고 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란 人間에게 열린 새로운 可能性이다. 그것은 未來에서 現在에 살고 있는 現存에 오는 초대장이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到來을 宣布하고 회개를 호소한 것은 바로 人間에게 열려 있는 새 可能性에 대한 宣言이요, 同時에 그 可能性에 自己를 開放할 때만이 비로소 참 人間으로서의 구원이 있음을 啓示한 것이다. 人間은 到來하는 것에 依해서만 참 나로서 살 수 있다. 이것은 성서의 특유한 人間觀이다.

佛敎나 회람의 思考에서는 人間은 永遠不變의 法에 依해서만 살 수 있다. 그 法은 可變的인 것에 대해서 永遠하다. 人間이라는 個性은 可變的인 漸定性和 不變性的 複合體다. 따라서 人間の 삶이란 이 두 要素의 긴장 관계에서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그 삶은 고난이다. 이 人間이 이 고

난에서 구원 받는 길은 脫我하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意味에의 脫我が 아니라 不變性的의 自己에로의 復歸다. 따라서 人間의 未來란 새로운 可能性이 아니라 永遠부터 既存한 法則의 세계에의 還元이다. 따라서 구원이란 動的인 데서 靜的인, 時間的인 데서 全 時間的인 데로의 沒入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既存的인 어떤 秩序따위 같은 實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새로운, 創造的인 可能性이다. 따라서 그 內容은 무엇인지 公開될 수 없다. 까닭은 그것은 可變, 不變의 영역이 아니라 참여(動)하므로써 現實이 되는 純粹 可能性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나라에의 참여는 脫我가 아니라 脫出이다. 「나」를 비켜버리면 낡은 것의 죄사슬을 끊고 脫出해서 새 세계로 移動하라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며 「속히 오시오」다.

이 비유에서는 유대 전통에서 보는 것처럼 초청에 어떤 조건도 요청하지 않는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든지, 마태에서 보는 것 같은 어떤 禮服을 입고 오라고도 하지 않는다. (마태의 것은 벌써 후대교회의 삶의 자리가 채색돼 있다). 무조건 그 초대에 응하면 된다.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 불구자 등 당시의 소외자들을 청했으며, 길

어구에서 아무나 청해오라고 한다. 회개하라는 뜻도 네 죄를 씻고, 네 잘못을 청산하고 그리고 오람이 아니다. 죄를 씻고 잘못을 청산하는 길은 「修身」따위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데에서 새 세계로 脫出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脫出은 存在論的인 分析이나 현재 상태의 비극성에 대한 覺이나 知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서 오라」라는 내 밖에서의 초청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응하여 나를 내 맡길 때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성서는 믿음이라고 한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준비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따라서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未知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다. 사람이 萬一 무엇이 준비되었는지를 思辨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그의 추측에 들어맞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전혀 새로운 可能性일 수도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價値나 개념 또는 언어가 도절되는 현실이어야 정말 새 可能性이다. 따라서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모험이며, 그것에 응하는 것은 결단일 수 밖에 없다. 이 결단은 어떤 確率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단지 초청하는 그 뜻에 무조건 自己를 내맡기는 일이다. 그런 뜻에서 믿음만이 이 새 세계에의 초청에 응

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脫出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준비가 됐다. 어서 오라」라는 대답 이상일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새 可能性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것은 이미 그 나라의 현실을 모르는 질문이다. 그때도 묻는다면 그것은 지금의 것은 아닌 전혀 새로운 현실이라는 말 이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 초청에서 人間이 들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 주며 그러므로써 人間の 本來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함을 보여준다.

두 人間型

이 주인은 一定한 사람들에게 이미 초대장을 보내고 종을 보내서 저들을 오라고 했다. 그러나 저들은 모두 거절했다. 이것은 당시의 聽衆들에게는 누구를 뜻하는지 곧 알 수 있는 말이다. 그것은 유대人们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選民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이미 받은 民族으로 自處했었다. 그러나 저들은 막상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서 초대를 외면했다. 이것은 유대 民族의 우선권을 認定함과 동시에 저들의 不信仰을 폭로한 것이다. 그런데 저들의 不應의 이유들은 저들의 眞相을 신란하게

폭로한다; 저들의 不應의 이유는 산(賣)것 때문이었다. 소를 샀다, 밭을 샀다, 결혼했다 이다. 當時의 유대 관습대로 하면 결혼도 경제가 허락하는 만큼 多數權이 있었으니 그것도 女人을 산 것이 된다. 저들은 내것으로 만든 것 즉 所有된 것 때문에 그 초대를 거부해야만 했다. 그 所有들은 日常生活에서 不可缺의 것들이다. 저들은 所有한 것 때문에, 새 可能性을 거부한 人間들이다. 저들은 所有한 것에서 「나」를 사는 사람들, 所有한 것에 삶의 거점을 둔 사람들이다. 所有! 그것은 반드시 物質의인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倫理일 수도 있고 宗教일 수도 있다. 하여간 既得權 一切를 다 포함한다. 우리가 既得權을 過去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過去에 依해서 現在를 살려는 사람들이다. 내것이 된 것을 確保하며 최대한으로 이용하자는 사람들은 새 것, 外界와의 접촉을 싫어한다. 까닭은 既得權이 침해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입에 문 짐승은 모든 것을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가진 자는 언제나 變革따위를 거부한다.

세계 역사는 保守와 革新의 투쟁사다. 保守는 既得權에의 미련 때문에 새 것에 대해서 폐쇄적이다. 유대人們은 야훼종교의 既得權意識 때문에

未來에 對해 排他적이었으며 列에와
의 關係에서 排他的이었다. 가진 자
의 既得權은 그 權利가 인정되는 秩
序가 유지될 때만 유지된다. 그러므
로 저들에게 새 세계 또는 새 질서
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요대로
있어다우, 그래야 나는 내 既得權을
향유할 수 있다>. 이것이 保守의 열
원이다. 그러기에 富者가 하늘 나라
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政治界거
나, 文化界거나, 宗教에 있어서까지
도 權力, 教權, 指導權을 장악하는
순간 사람은 보수적이 된다. 그것은
혁명을 가치로 내세운 공산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탐시
스트인 「블로흐」는 「이메올로기」는
언제나 執權者의 원호역할 밖에 못하
다고 하여 오늘의 공산주의도 하나
의 이메올로기化 되므로 현재의 집권
층의 御用物 以上の 역할은 못한다고
진단하고 새삼스럽게 사람은 무엇을
희망하느냐로써 현재를 결정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의
초대으로써 이러한 過去 定着的인 人間
의 모습이 폭로됐다.

주인은 저들의 거부에 노했다. 그
는 종들을 보내어 가난한 자들, 불구
자들, 소경도, 절뚝발이들도 청했다.
저들은 한마디로 하면 가진 것이 없
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注目할 것은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消
極的인 面밖에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
이다. 이것은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
의 특징이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슬피 우는 자들이라고 할 뿐, 저들에
게 倫理的으로나 宗教的으로 어떤
적극적인 것을 지적하지 않고서 복
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저들
은 가난하나 깨끗한 마음의 所有者
라거나, 불구자지만 宗教心이 強하
기 때문이라는 따위의 긍정적인 面
의 인정이 없다. 그렇다면 저들이 새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초
대를 거부한 자들과는 다른 어떤 것
을 所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철
저히 가지지 않은 데서 그 근거를 찾
는 수 밖에 없다. 저들은 客觀的으로
보면 그 社會에 설 자리가 없는 소외
당한 자들이며 個人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무엇이
저들의 삶의 전환을 가져왔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 초대에 應했다는
사실 자체 뿐이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했다는 사실은 저들의 存在樣式을
말한다. 초대에 응한 것은 그 초대에
自己를 開放한 것이다. 그 초대가 새
可能性에의 초대라면 저들은 새 可
能性에 自己를 開放한 存在임을 말한
다. 새 可能性은 未來的인 것이라면
저들은 未來指向的인 存在들이다.
즉 저들은 가진 것에서 삶을 찾지
않고 기다림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가진 것이 없기에 現在 定着的이 아니라 오히려 過去의 연장인 現在에서 脫出할 태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그 초대에 응한 것이다. 그러나 가난 자체, 不具된 것 自體가 가난한 마음을 주며 따라서 未來指向的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통 속에서 사는 디오게네스는 王의 영화도 안중에 없는 內的 富에 도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가난함, 不具가 더 現在愛着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적인 표현은 到來하는 것에 依해서 살려는 者의 심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비유를 듣는 當時의 유대 聽衆의 귀에는 이것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며 초대교회의 귀에는 유대전통적인 眼目에서 판단되는 異邦人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하여간 그 어느 쪽이든지 저들은 現在에서 아무런 既得權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은 아니다. 따라서 저들은 궁극적인 삶의 거점을 未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內的으로 보면 빈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社會學的인 側面에서 규정한다면 革命兒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해올로기를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인들이 아니라 未來에 의해서 現在를 항거하는 혁명인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새 세계에의 초대는 그 어느 한 부류에게만 向한 것은 아니다. 새 세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한 부류에게는 열린 門이요, 다른 한쪽에게는 닫힌 門이다. 까닭은 그 未來의 세계는 그 자체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에 참여함으로써 創造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묻는 말

人間은 到來하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선 存在다. 하나님 나라의 宣布는 바로 「나」밖의 어떤 道具나 힘들어서 自己存在根據를 찾으므로 實存을 喪失한 나의 眞相을 폭로함과 同時에 그런 것에서의 脫出을 명령한다.

그 나라에의 초대는 어떤 특정한 상황, 가령 예배, 기도, 또 어떤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 局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日常生活 한 복판에 있는 나에게 전해진다. 소를 사고 있는 나, 밭을 산 나, 결혼한 나, 길을 가는 나, 불행한 나, 즐거워 하는 나에게 전해진다. 定座한 나가 아니라 일하고 行動하는 나에게! 이 부름은 日常性에 간하여 질식하는 나의 突出口며 脫出을 可能케 하는 손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름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까닭은 우리는 내 지금 가진 것이 나를 살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써 實

은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엇들에 所有當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초대에 應할 自由를 잃고 있다. 이스라엘 民族史는 脫出(Exodus)를 起點으로 한다. 애굽의 쇠사슬아래에 사는 것이 日常性으로 되어 自明化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불렀다. 이 부름이 저들의 삶은 實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다. 저들은 모세를 통한 부름에 호응해서 脫出을 감행하므로써 生動하는 民族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가진 것과 나를 混同한 習性에 젖은 저들은 계속 途上에 주저앉았다.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것이 저들의 원성이었다. 그러므로 이 7세대는 中間定着하므로 새 세계를 보지 못하고 죽어버려야만 했다. 저들이 가진 것은 追憶이었다. 이 追憶은 저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기독교는 오랜 유대 전통의 세계에서 脫出하므로써 世界에 進出하고 巨步를 내딛었다. 그러나 그 걸음은 가진 것이 많아짐에 따라 점점 둔해지더니 마침내 途上에 定着하므로 自己를 喪失했다. 불트만은 히틀러가 소련에 宣戰布告하던 날 우리가 본 이 本文으로 설교할 때 다음 같은 挽歌를 불렀다. 「우리는 우리 民族 全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民族은 한 때 하나님의 부름에 접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 ...16세기에는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독일이 교회의 나라였음을 기억한다. 저 시골 시골에, 모든 都市의 교회와 빈스터나들이 이 사실을 입증한다. 靑少年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적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한 것은 그러한 입증이다. 교회의 전통이 우리 民族의 모든 삶에, 세례, 혼인, 장례에 속속들이 침투된 것이 그것을 말한다. 아직도 교회 건물이 우리들의 동리와 都市의 상징처럼 서 있으며 교회의 종소리가 主日마다 마을과 들을 울려 퍼진다. 나는 이미 교회가 그 中心이 되어있지 않다는 현실을 말하고 싶지 않다. 단지 나는 묻고 싶은 것은 主일에 참 예배드리려는 마음으로 들으려는 이가 교회에 얼마나 모이는가? 우리 民族 中에 몇 명이나 교회의 종소리를 주의 집으로 부르는 소리로 받는가? 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大성당들이 이미 주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고 교작 하나의 藝術品으로서 독일 民族의 精神과 遺産의 기념탑으로 되어버렸는가? 靑少年들의 기독교적 교육의 결과는 어디 살아 있는가?...우리는 모두 오늘날의 독일은 이미 기독교국이 아님을 안다.

우리는 이미 교회적인 삶이란 부스러기처럼 약간 남아 있는 것을 알

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 것조차 어서 사라져버리기를 원하고 있음을 안다…」고 했다. 그는 民族의 아니, 世界的 危機에 直面했으면서도 無能의 잠만 자는 독일 교회에 挽歌的인 호소를 한 것이다. 위기는 또 하나의 새 세계에의 부름이다. 그런데 독일교회는 이미 손에 들어온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름은 아랑곳없이 外面했던 것이다. 그러므로써 自己를 喪失하고 말았다. 萬一 독일교회가 히틀러가 조성한 그 위기를 脫出에의 부름으로 알고 일어섰던들 저들은 그 無能을 만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分明히 이 새 세계에의 초청을 받은 첫 무리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서 고질화된 낡은 세계에서 脫出하자는 소리를 들었고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왜 이처럼 無能한가? 100年 전통에서 얻은 遺産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民族의 危機 앞에서도 父母가 남기고 간 遺産때문에 싸우는 兄弟들처럼 內紛

만 계속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 優先權을 상실하고 오히려 「가치지 않은 자들」이 이 부름에 호응하여 脫出의 앞장을 서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기독교도는 낡은 것을 保守하는 데 집착하는 동안 소위 非宗教的인 인간들이 오히려 未來, 새 것 유포피아, 해방, 새 세계를 의치며 進軍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오늘의 그리스도교에게 그 나라에의 초대가 무효화됐다는 아니다. 아직도 그 門은 열려 있고 그들을 부르는 使者는 반드시 宗教的이거나 聖者의 탈을 쓴 것은 아니다. 아니! 바로 世俗的인 탈을 쓴 종들, 즉 가난하고, 不具의인 者들의 움직임이 그 使者다. 먼저 청함을 받은 교회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곧 脫出의 隊列에 投身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단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는 永遠한 宣告를 받게 될 것이다.